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2월 떼제찬양과 기도모임이 열립니다.

: 오늘 청파성서학당이 끝난 오후2:30에 연습이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는 분은 찬양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은 축도 후 송영이 끝난 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 18:15-20 / 시 111
고전 8:1-13 / 막 1:21-28

잠16:1-9
---------

오늘 식당 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이선화 정영란 박석희 홍성식  
 다음 주 식당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최미자 유상진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욕망이 소용돌이 치고 분주함이 일상이 된 삶 속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북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 발 한 발 깨어있는 마음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갑각류 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한 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고 남만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18:15-20, 고전8:1-13, 막1:21-28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권미정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순자	김인걸	문영혜
김정화	김정훈	이진영	김지호	전혜리	김필순	김혜영	민지희	박규석
박경선	박명제	서미경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방극숙	방문성	박혜경
배재경	이수정	백성래	신영희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안종일	정현주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이건우	이계숙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상준	오상희	이성범	권혁숙
이용석	이용현	이윤석	박안수	이재삼	전정현	이종현	이진영	한양미
이찬희	임고운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장아름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은선	장동훈	정한구	왕영순	정현숙	조경자	최형균
강경화	추현영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상균	허준호	홍복선	홍춘숙

### 감사헌금

김진중 박병구 김인순 신진식 변혜정 오민용 이범석 류정욱 이수자  
 이치림 강상연 최숙화 김정길 최은실 무명15

### 녹색꿈헌금

김재환 김진선 신영희 무명2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김윤수		
	안홍숙	오현정	숨	숨
	김경혜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이오복		

마음으로 읽는 글

## 다시 봄을 노래함

젓 줄 때 어미의 몸은 아기 쪽으로 기울어진다 꽃도 기울어지며 열매를 맺고 사랑도 그대 쪽으로 좀 기울어져야 한다

나를 품는 그대 또한 기울어진 몸이니 달이 조금 기울어지는 것도 이해할 것 같다 바르다는 수평선 또한 둥글게 기울어진 몸이니, 그렇게 달과 바다의 줄타키 있는 것이니 우주라는 말도 이해가 된다 기울어진 것이다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몸이 기울어진 것이니 내 안 어디에 꽃이 피었겠구나 진주가 돋았겠구나 너로 인해 내가 앓은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 내가 별 하나 낳겠구나

아픔으로 기쁘니, 이제는 오시는 햇살마다 네 이름을 새겨놓고 오래 앓아야겠다 그게 꽃이고 그게 사랑이니 나의 빈틈에 그대를 좀 길러야겠구나

- 이대흠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늘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 돌이키십시오. 교만함과 욕심을 버리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아멘. 크고 화려한 길만을 소망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좁고 험하더라도 참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높은 곳에 서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수요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폐제 찬양과 기도 모임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권사	조재훈 선생 안홍숙 권사

2	영접위원	박홍재 박범희 박석희 박미영 조항미 최은미
	헌금위원	김인걸 백혜숙

##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교회론 논의의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통찰을 던져준 또 하나의 구절이 있다. “그리스도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ubi Christus ibi ecclesia”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1세기의 감독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말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이 경구를 중심으로 세 종류의 서로 다른 교회론을 설명하는데, 가톨릭교회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도적 계승’이란 차원에서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사제와 교황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가 교회에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개신교 전통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설교와 성례전에서 제대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거기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초청을 듣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신앙을 고백하고, 동일한 종말론적 해방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교회 의식에 대한 물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의미에서 교회에 관해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론에 대한 논의는 결국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란 질문으로 수렴한다. 가나안 성도<sup>•</sup> 현상의 핵심에 존재하는 질문, ‘이것은 교회인가?’는 곧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란 질문으로 이어진다. ...

가나안 성도 현상이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한 반발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이 과연 무엇에 대한 저항이고 반대인지를 잘 짚어 보아야 한다. 제도나 전통이란 그 자체로 신성화되지 않고 적절히 기능하는 한 유익이 있다. 한 세대가 그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승할 때, 제도나

전통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가나안 성도 현상에서 모든 제도와 전통에 대한 거부와 반발이란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한 세대를 넘길 수 없는 해프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을 좀 더 심화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것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신앙의 표현과 계승, 그리고 이를 통한 확장과 심화를 위해 기능하는가를 묻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도대체 그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는 것인가’하고 정색하고 묻는 것, ‘흥내만 낼 뿐 오히려 그 과제를 훼손하고 훼방하는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직설적 물음을 던지는 것. 가나안 성도 현상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질문들이다.

종종 가나안 성도는 공동체가 결핍되어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받는다. 물론,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는 철저히 개인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슷한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런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공부모임을 만들거나,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제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간 교회가 제공해온 ‘공동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되물을 필요가 있다. 중대형교회의 공동체성은 상당 부분, 유사한 계층과 학력 수준의 기독교인들을 모아놓으면 자연 발생하는 수준의 귀속감은 아니었는가?

교회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성’이 이 정도를 넘어서지 못할수록, 성도들은 사실 더욱 긴밀한 공동체를 사회 내에서 많이 경험한다. 사회적으로 훨씬 재미있거나 의미가 큰 만남들이 존재한다. 친밀한 인간관계와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만남은 비형식적인 모임과 온오프라인의 관계 속에서 상당 정도 해소되거나 충족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의미 있는 공동체 경험을 전통적인 지역교회가 아닌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다. 공동체 경험이 없으면 교회론적으로 치명적인 결핍이 된다는 주장은 부메랑이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현상 자체가 교회가 공동체 되기에 실패함으로써 촉발되는 현상이라면, 공동체성의 결핍이 진정 문제되는 곳은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그들을 떠나보낸 대부분의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 (포이에마) 중에서

• 가나안 성도 :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 ‘안 나가’를 뒤집어 나온 ‘가나안’이란 단어에 ‘성도’를 붙여 만든 조어로, 오늘날 제도 밖에서 신앙을 찾고 있는 일군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